Hello.

We received your November mission donations well. I appreciate it.

We spend a lot of time running the reopened Christian School.

As I am in charge of all the operations of the school, I check every corner of the school.

We are making a list of things that need to be improved and organizing them one by one .

I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Lord for guiding the ministry in 2022 and my co-workers for their support and prayers.

The 2022 ministry report is attached to the annex.

In addition, related videos are also attached in the order of ministry.

Photo 1. Christian School

        2. Local Church Planting

        3. Korean Language School

        4. Cheracott School for the Deaf

 2022 네팔 선교보고                                                                                                      Nov. 02 2022

안녕하세요 네팔 선교지에서 문안 드리며 2022년 한해의 사역 보고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서서히 물러가고 모든 분야에서 활기를 되찾은 한해 였습니다만 이곳 네팔 사역지에는 올 1월에 함께 동역 하시던 이 예신 선교사가 혈액암으로 하나님품에 안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 전에는 배우자를 데려가시고 올해는 동역자를 데려가셨습니다. 올해는 사역을저 혼자 감당 해야 했습니다. 혼자 감당 하기가 힘 들었지만, 모든 사정을 아시고 인도 하시는 주님께서 힘 주실것을 믿고 사역에 임 하고 있습니다.

 1. 크리스챤 스쿨 (Light & Salt School)의 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한국인 선교사가 다섯번째 암과 투병하며 지은 크리스챤 스쿨에서 크리스챤 리더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개교하여 학교가 운영 되다가  지난 1월 고 이예신 선교사의 갑작스런 소천으로 학교 운영은 잠시 쉬었다가 9월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여 현재 22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기숙하며 기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네팔 교회 목회자의 자녀들을 학생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데 지방학생들이 많이 와서 학교에서 기숙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는 영어권 교사가 필요 합니다. 원어민이 영어를 가르칠수 있도록 단기 자원 봉사자가 필요 합니다.

2. 로칼 교회 개척 지원

제가 현재 살고 있는 Banep a (바네파) 라는 도시는 카트만두에서 동쪽으로 한시간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곳 로칼교회인 시온교회를 도와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인근 산간 지역에 개척한 소망교회(머히마 교회)를 돕고 있으며 새로 개척한

교회에 담임 목사(Rajen)를 세우고 사례비를 도와 주고 있습니다.

올 해 2월에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산간 지방에 교회를 하나 세울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칼 교회인 시온 교회에 다니던 젊은 부부가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일을 할수가 없게 되자 고향 (신둘리Shinduli)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부부를 포함하여 5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로칼교회 목사와 제가 번갈아 찾아가서 말씀도 전하고 돕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교회 이름을 새 생명교회(New Life Church)로 지었습니다.

            3.  한국어 학원 사역

비자 때문에 시작한 한국어 학원이 네팔 젊은이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에 취럽을 하려면 한국어 시험에 합격 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제가 사는 이곳 바네파에 한국어 학원을 열고 3년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네팔 젊은이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의 크리스챤 스쿨의 운영을 제가 혼자 맡고 있어서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한국어 학원에 소홀해 지고 있습니다.

네팔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파의 좋은 만남의 기회와 장소가 되길 기도 하고 있습니다.

4. 체리콧 농아 학교 사역

고 민영미 선교사도 각별한 사랑을 전하고 애쓴 곳으로 지난 2014년 1월 네팔 차리콧에 처음 세워져서 저와 인연을 맺게된 농아학교 입니다. 처음에 열악한 시설과는 달리 5년이 지난 지금은 새로 건물도 짓고 로칼지역 여러곳에서 도움을 받아 이제는 네팔에서도 모범적으로 발전하는 농아학교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30여명의 남 여 학생들이 기숙 하고 있는데 2018년 가을부터 전하기 시작한 복음으로 현재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두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심으로 2019년 부터는 한국 감리교단에서 파송된, 수화가 가능한 한인 선교사와 협력하여 수화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나 교사등 다른 관계자의 눈은 피하고 있습니다. 신고라도 들어가게 되면 추방까지 감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달10월 일에 농아학교의 책임을 맡고 있는 비스누(Bishnu 38세)교장이 세례를 받고 크리스챤으로 거듭났습니다. 앞으로 농아학교의 모든 어린이 들이 세례를 받기를 기도 합니다.여러가지 법률상 제재와 핍박이 많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데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것을 믿습니다. 힘 닿는데까지 농아학교의 어린이들을 위한 보충 시설과 놀이기구 학용품, 음식물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은 기도의 후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것을 현장에서 절실히 체험 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복음화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1. 크리스챤 스쿨의 운영과  단기영어권 교사의 자원봉사 지원을 위하여

2. 개척교회 머히마 (소망 교회)와  New Life Church(새생명 교회)부흥을 위하여

3. 한국어 학원 운영과 학생모집을 위해

4,  농아학교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